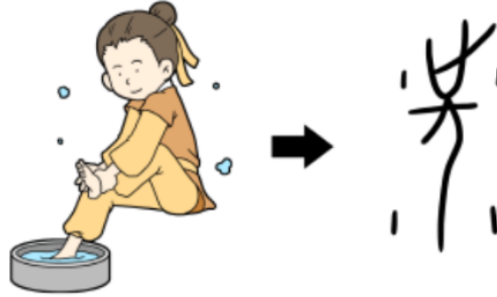


5(2)
-
51

회의문자 ①



洗

씻을 세

洗자는 '씻다'나 '설욕하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洗자는 水(물 수)자와 先(먼저 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洗자를 보면 先자 주위로 물이 튼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先자는 사람의 머리 부분에 발을 𠂔 그린 것이다. 이렇게 발을 강조해 그린 先자에 水자를 결합한 것은 발을 씻는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洗자의 본래 의미도 '(발을)씻다'였다. 그러나 지금의 洗자는 단순히 '씻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𣎵

갑골문

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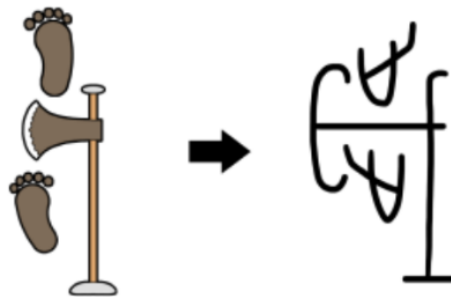
소전

洗

해서

5(2)
-
52

회의문자 ①



歲

해 세

歲자는 '세월'이나 '나이', '한평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歲자는 戍(도끼 월)자와 步(걸음 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戍자는 도끼 모양의 고대 무기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도끼와 걸음을 함께 그린 歲자가 어떻게 '세월'이나 '나이'를 뜻하게 된 것일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고대에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들이 많았다. 歲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창(戍)을 들고 싸우면서 보낸(步) 시간'이라는 뜻이다. 歲자에 '한평생'이라는 뜻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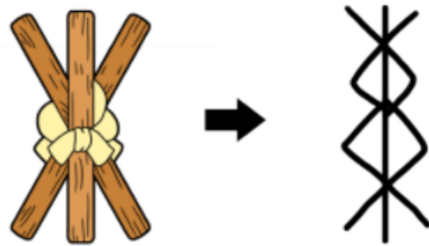
소전

歲

해서

5(2)
-
53

상형문자 ①



束

묶을 속

束자는 '묶다', '결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束자는 木(나무 목)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쓰인 口자는 나뭇단을 묶어 놓은 '끈'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갑골문에 나온 束자를 보면 나뭇단을 묶은 놓은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束자는 이렇게 나뭇단을 묶어놓은 모습으로 그려져 '묶다'나 '동여매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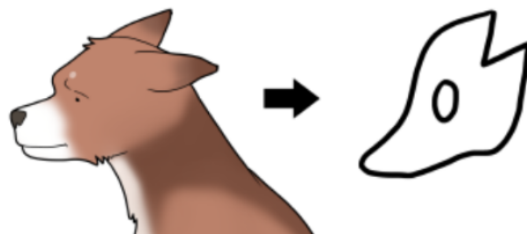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54

상형문자 ①



首

머리 수

首자는 '머리'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首자는 사람의 머리를 뜻하는 글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물의 머리를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首자를 보면 입이 길쭉한 동물의 머리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큰 눈과 뿔을 표현하고 있어서 마치 사슴의 머리를 그린 것과도 같았다. 이처럼 首자는 동물의 머리를 그린 것이지만 실제 쓰임에서는 사람의 '머리'나 '우두머리'를 뜻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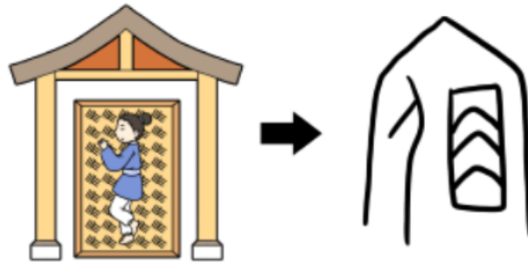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55

회의문자 ①



宿

잘 숙 |
별자리
수

宿자는 '자다'나 '숙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宿자는 宀(집 면)자와 人(사람 인)자, 百(일백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宿자는 宀자와 佰(일백 백)자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큰 관계는 없다. 왜냐하면, 宿자에 쓰인 百자는 모양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갑골문에 나온 宿자를 보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宿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宿자의 본래 의미는 '자다'였다.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숙박하다'나 '오래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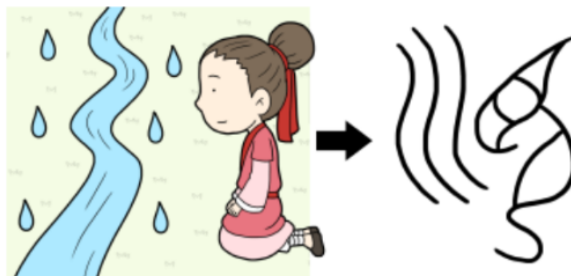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2)
-
56

회의문자 ①



順

순할 순

順자는 '순하다'나 '유순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順자는 川(내 천)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유순하다'라는 것은 순응하며 잘 따른다는 뜻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렇기에 順자에 쓰인 川자는 사람이 까다롭지 않고 물 흐르듯이 순응하며 잘 따른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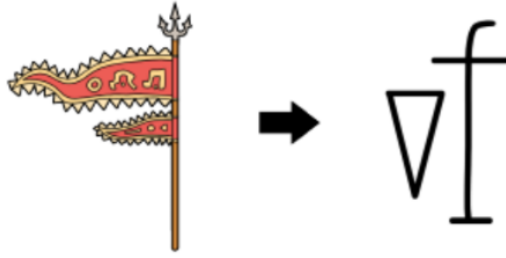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2)
-
57

회의문자 ㉠



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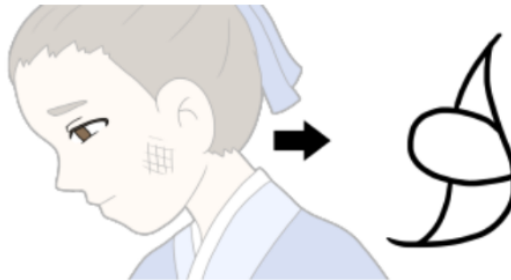
알 식

識자는 '알다'나 '지식', '표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識자는 言(말씀 언)자와 戠(찰흙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戈(창 과)자에 깃발이 걸려있는 𠄎 모 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긴 창이나 막대기에 깃발을 매달아 부대나 종족을 구별했었다. 識자에 아직도 '깃발'이나 '표시'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다. 그래서 識자는 본래 이러한 표식을 그렸던 것이지만 후에 言자와 音(소리 음)자가 차례로 추가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말(言)과 소리(音)를 통해서도 식별한다는 뜻을 전 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58

상형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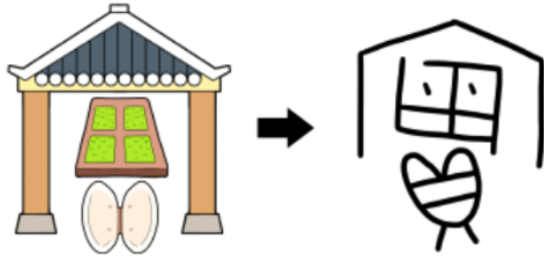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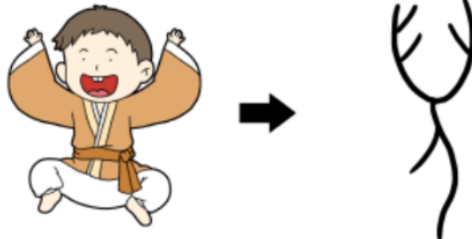














臣

신하 신

臣자는 '신하'나 '하인', '포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臣자는 고개를 숙인 사람의 눈을 그린 것이다. 臣자가 '신하'라는 뜻을 가진 것은 왕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그린 것이 기 때문이다. 臣자는 본래 '포로'를 뜻했던 글자였다. 고대에는 포로로 잡히거나 항복한 노예 들을 왕실의 노예로 삼았다. 臣자는 그들을 일컫던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왕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면서 지금은 '신하'나 '하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臣자는 단 독으로 쓰일 때는 '신하'를 뜻하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監(볼 감)자나 臥(엎드릴 와)자 처럼 고개를 숙인 사람의 눈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59	<div>회의문자 ⓘ</div> <div></div>								
<div>實</div> <div>열매 실</div>	<p>實자는 '열매'나 '재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實자는 宀(집 면)자와 貫(뿔 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實자의 금문을 보면 宀자와 田(밭 전)자, 貝(조개 패)자가 𠩺 결합해 있었다. 집에 밭과 재물이 있으니 이는 매우 풍족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밭과 재물이 貫자로 바뀌면서 집에 돈뭉치가 있음을 뜻하게 되었다. 實자는 '부유하다'를 뜻했으나 후에 '결과가 좋다'라는 뜻으로 확대되면서 지금은 '열매'나 '재물', '내용'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p> <table><tr><td></td><td></td><td></td></tr><tr><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금문	소전	해서		
									
금문	소전	해서							
5(2) - 60	<div>상형문자 ⓘ</div> <div></div>								
<div>兒</div> <div>아이 아</div>	<p>兒자는 '아이'나 '젖먹이'를 뜻하는 글자이다. 兒자는 儿(어진사람 인)자와 臼(절구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兒자의 갑골문을 보면 人자 위로 머리와 이빨이 𠩺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아직 머리 털이 닫히지 않은 아이의 머리와 젖니를 함께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兒자에 쓰인 臼자는 '절구'와 관계없이 아이의 치아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p>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